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사례집

문

세종대왕의 꿈

1446년, 세종대왕은
나라말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하지만 5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종대왕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이
264만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우리글을 배워
인생에 글자꽃을 피우기 위해
전국 3만 명의 학습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꿈이
문해교육으로 실현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문해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얻는 분들의
인생의 글자꽃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Contents

02 냄비 받침을 펼치니 세상이 있었어요
최우수상 유점례

08 달그닥달그닥, 글이 내게 오는 소리
우수상 신정자

14 내 곳간에 배움의 보따리가 쌓여요
우수상 송경자

20 배움이 나를 활짝 웃게 합니다
글자꽃상 박정용

26 최우수 수상작

36 심사평

문 文 門 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들의
배움의 행복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아 『문』을 발행합니다.
우리는 이 책이 文글월 문해교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門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問물을 문하는 학습자들에게
어두운 밤을 밝히는 Moon과 같은 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냄비 받침을 펼치니 세상이 있었어요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
유점례 |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심곡리학습장

"글을 배우고 보니 전화번호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책이더라고요.

그 소중한 책을 그냥 냄비나 받치는 데
썼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녕하세요. 단양군평생학습센터 심곡리학습장에서 공부하는 유점례입니다. 공부를 한 지는 올해로 2년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여섯 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일흔 살 먹은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내가 문해교육을 알게 된 건 2년 전입니다. 일을 거들러 현천리에 갔다가 우연히 문해교육을 알게 됐지요. 그때 거기 부녀회장님이 일하다 말고 책을 들고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어디가세요? 물었더니 공부하러 간다, 그러셨지요. 그렇게 문해교육을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이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장님이 우리는 인원이 적어 안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안되면 우리처럼 작은 마을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사나 싶었지요.

마침 그 즈음에 행사가 있어 군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 손을 잡고 군수님, 인원이 안 되면 공부를 못하나요? 물었지요. 군수님은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해야지요. 그러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마을사람들의 힘을 모아 결국 우리 마을에도 문해교육 학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덟 명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은 마을이다 보니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더 적어져 학교가 폐쇄되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지요.

나는 어려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다 엄마한테 맞기도 참 많이 맞았지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다섯 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부모님이 입 하나 덜어보려고 일찍이 나를 시집 보낸 거지요. 그때는 나이 어린 딸을 시집 보내면 뭘 안 해서 보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른 거예요. 나는 시집 가기 너무 싫어 도망을 가려고도 했어요. 시집을 가느니 어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학교에 다니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라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지요. 공부를 하면 내 답답한 속이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을 가로질러 저만치 도망을 치는데 엄마가 언제 알고 따라왔는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너는 이 길로 가면 엄마랑은 하직이다, 그러셨죠. 지금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때 나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내가 그냥 죽는 거나 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 그저 공부가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부모님은 여자애가 집을 나가 살면 바람이 들어 잘못 될 거라 생각하셨죠. 엄마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무식자로 나이를 먹게 되었네요.

시집을 와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은 쉬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글씨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통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엔 좀 치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부디 가르쳐 달라고 매달릴 일이 있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네요. 새끼들을 하나 둘 낳다 보니 다섯이에요. 애들이 크면서 글자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뭐예요? 해도 나는 답변 한번 시원히 못 해줬어요. 그냥 못 들은 척 돌아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이제는 내 이름이라도 알아보니까 그 분이 좀 풀리지만, 그때의 서러움은 말로 설명 못하지요.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고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배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누가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거였어요. 못 쓴다고 하기 창피하고 난감해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곤 했지요.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 부녀회장 일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녀회장 노릇을 맡겨 놓으니 바보짓도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한번은 우리 마을에서 폐품을 모아서 읍에 내다 팔 때, 마을 이름은 뭐고 이건 몇 키로다 써서 내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다른 마을 부녀회장님한테 이것 좀 적어달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적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웬 부녀회장을 맡았느냐, 그런 태도였지요. 창피하고 무안하고 아주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네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글을 배워 쓸 줄 아는데, 나는 왜 못 배워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나. 저 사람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기에 자기 속에다 글을 집어넣고 쓸 수 있게 되었을까, 매일같이 한탄했지요. 못 배웠다는 걸 남들에게는 속여도 내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매일매일이 찜찜했어요. 혼자 글을 깨우쳐 보려고도 무지 애썼지만 아무리 해도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마음 먹고 시내의 야간학교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다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크게 다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짓도 못하겠다. 공부도 좋지만 가족들 걱정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에 다시 주저 앉아버렸네요.

여기에 다니는 것은 우리 남편도 아주 좋아해요. 처음 다닐 때부터 나는 아주 못을 박았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닐 거다. 학교 가는 날에는 당신 혼자 나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시키지 말아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와서 공부할 거다, 그랬어요. 단단히 못을 박았더니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 공부하러 간다는 걸 본인이 먼저 알고, 챙겨서 가라고 해요. 끼니 때가 되면 본인이 다 챙겨먹고요. 참 고맙지요.

처음엔 가방을 짊어지고 나오는 게 조금 낯부끄럽기도 하더

라고요. 이 나이에 글 배우러 다닌다는 것이. 그런데 까짓 배움에 배부름이 어디 있고 창피함은 또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더니 이젠 아주 당당해졌어요. 배움은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해주지요. 이번 시에도 썼지만 나는 전화번호부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그 책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던져뒀다가 된장찌개 끓이면 그걸 가져다 받치곤 했지요. 그런데 글을 알고서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책이 아주 소중한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니 그 책엔 세상 모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전화번호부를 보고 나는 어느 식당에 전화를 걸어 밥도 시켜보고, 다른 마을의 아무개한테 전화를 걸어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도 해봤어요. 글을 배우고 보니 그 책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 소중한 책을 그냥 냄비나 받치는 데 썼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상을 탄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애들, 제주도 사는 조카까지 그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상을 타게 되니 제일 고마운 분이 선생님이더라고요. 제일 고맙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이분이라면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겠다, 그랬는데 역시나 맘과 뜻대로 그렇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일러주시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또 알려주시니 공부하기 참 수월해요. 시골 구석 마을까지 수고롭게 오시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겨울에 어떻게 하나 벌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이 눈길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오시기 수월하게 눈 오는 날엔 하루 세 번씩 눈 쓸고 모래도 다 뿌려놓을 거예요, 그랬어요. 다니기 편치 않은 길을 오시게 해서 죄송하니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배워서 제일 좋은 점은 이제 내 이름을 서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뭘 쓰라고 하면 어려워하지 않고 써낼 수 있다는 것. 그거면 된 거지요. 난 단양에 살면서 구인사도 한 번 안 가봤는데, 언젠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지나가는 길의 간판도 줄줄 읽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런 내용을 시원스럽게 적어보고 싶어요. 아직도 겹받침이 나오는 건 읽을 때 말문이 턱 막히고 쓰고 또 써봐도 어렵긴 해요. 많이 서툴지요. 젊을 때 같으면 금방 배웠겠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까먹네요. 우리 나이는 뇌가 발달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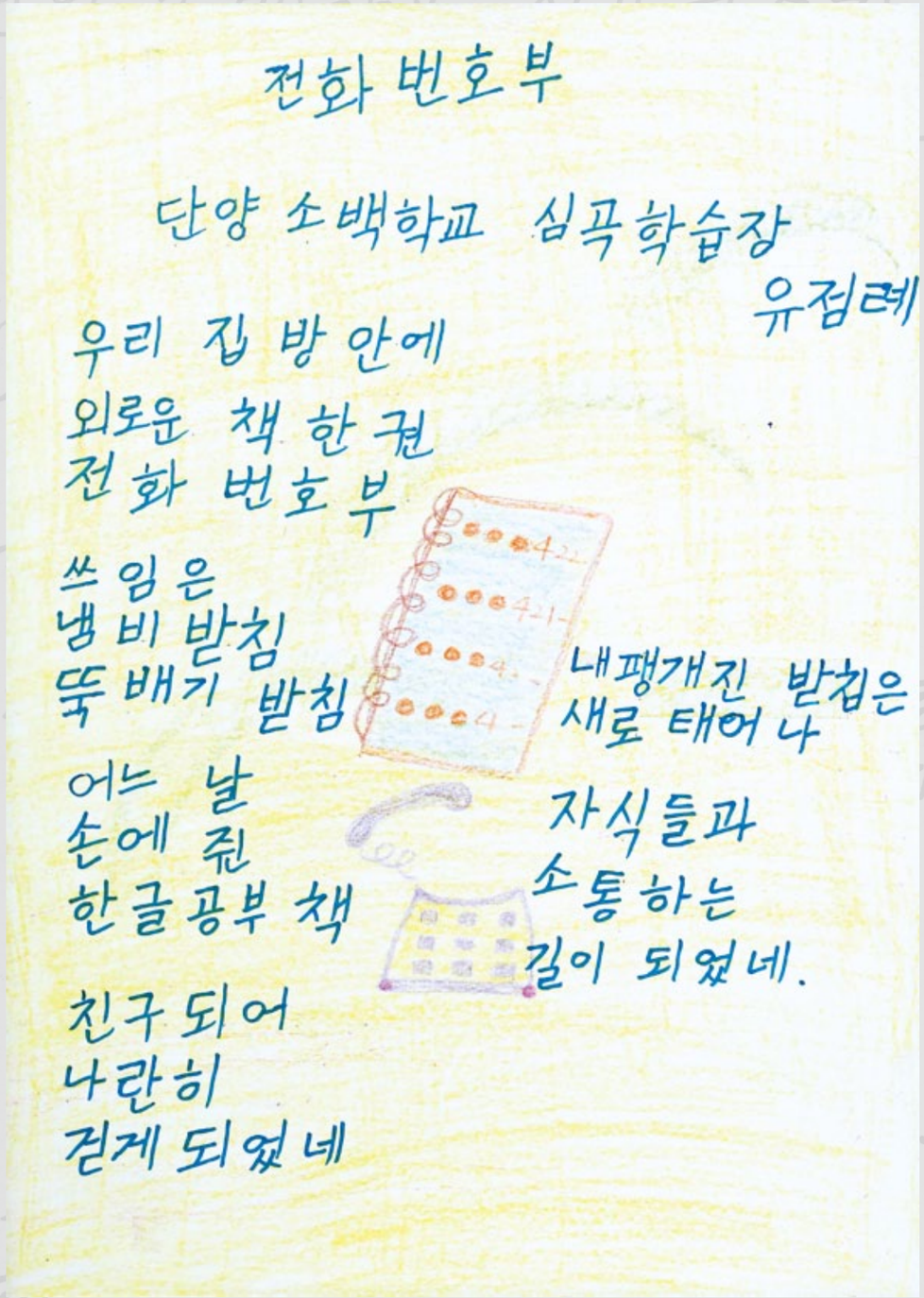
그래도 나는 가르쳐만 준다면 끝까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서도 더 배우고 싶은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이걸 다 까먹으면 어쩌나 두려워요. 확실하게 한글을 떼고 나면 영어도 배우고 싶고 한문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셔서 영어로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요즘 애들처럼 발음하긴 어렵더라고요. 더 배워서 혀 꼬부라지게 영어를 해보고 싶다, 그게 꿈이 되었어요.

어릴 때 나는 꿈이 없었어요. 내가 글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몰랐던 거지요. 그저 도시에 나가 살고 싶었어요. 식당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눈이 밝아서 어디든 들어가 내 이름 석 자를 쓰고 일하는 거, 그걸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 했지요. 시골에 매여 사는 게 너무 싫었는데 도시에 나가서 하다못해 청소부라도 하려면 뭘 알아야 하지요. 입사 서류 같은 거 내려면 이름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스스로 참 답답했네요. 꿈은커녕 후련하게 시골을 벗어나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이나마 글을 배우니 답답한 가슴이 좀 풀려요.

배울수록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손녀딸이 읽는 책을 나도 읽고 싶어 욕심도 내보고요. 추석 때 손녀딸이 내가 읽을만한 책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 책들이 기대돼요. 만화책을 갖다 준다기에 나는 그림 없이 글자만 가득한 책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글자만 있는 책은 처음에 어떤 책인지 전혀 모르다가 더듬더듬 글자를 읽으면서 이게 어떤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으로 어림짐작할 수 있는 책들보다 알아가는 재미가 더 있다고 할까요.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아가요. 글자를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처럼 나는 글을 알고 나서 세상을 새로이 알아가지요.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굴러다니던 냄비 받침이 세상과 나를 소통하게 해주는 전화번호부라는 것을 아직도 난 몰랐겠지요.

글을 배우기 전에 나는 마음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할머니였는데, 글을 배우면서는 호기심 많은 아이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지 글을 모를 때는 알고 싶지 않던 것까지도 이제는 모두 다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겉은 이렇게 다 늙어버렸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 꽃밭을 헤매요. 글자 꽃이 무성한 향긋한 길을 오늘도 나는 가방을 메고 열심히 걷고 있어요.



달그닥달그닥, 글이 내게 오는 소리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상)

신정자 | 서울 전곡초등학교 문해교실

“동생들이 집에 책보를 갖다 놓으면
연필은 곯을까봐 꺼내놓고,
공기 놀이하던 자갈을 한 움큼 필통에
집어넣고 책보를 메고 뛰었어요.
달그닥달그닥, 달그닥달그닥.
얼마나 뛰었나 몰라요.”

내 이름은 신정자, 1943년 생으로 올해 일흔넷 먹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청주로 시집을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1979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해로 서울 온 지 37년 됐네요. 복잡한 서울에서 글 한 자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살아왔나 모르겠어요. 큰 건물이나 좀 알아보고 크게 써진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가 남산이구나’ 이렇게 몇 자는 읽었어도 글을 쓸 줄은 전혀 몰랐지요.

나는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 상대로 비닐봉투 장사를 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와 할 게 없어서 시작한 일이 종이봉투를 붙이는 일이었지요. 매일 밤낮으로 종이봉투를 붙였어요. 우리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종이봉투를 붙였는데, 다 붙이고 내가 100장씩 세서 챙길 동안 애들은 숙제를 하고 다 세면 또 붙이고. 애들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비닐봉투가 나오면서 배운 도둑질이 이거라 계속 연결해 봉투를 팔며 살아요. 지금도 밤 아홉시에 시장에 나가 새벽 두어 시에나 집에 돌아오지요.

어느 날인가는 새벽에 들어와 자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신정자 씨 아니냐고. 지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해교육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가 신청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전곡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는데, 며느리가 여기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 어머님 공부하시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 덕에 3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예뻐서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있지요. 장사하느라 늘 잠이 부족하지만, 수업에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세 번은 꼭 여기 나와요. 아주 악착같이 다니지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난 딱 한 번 결석했어요. 어느 날인가 너무 피곤해서 자다 보니 늦잠을 자버려서 못 온 날이 한 번 있네요.

이제 나는 글을 쓰는 건 잘 못 써도 읽는 건 아주 잘 읽어요. 오후 두 시부터 수업인데 반 친구들이 하도 닦달을 해서 나는 두어 시간 일찍 와서 친구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내가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데도 아직 ‘한’ 하고 ‘학’을 헷갈리는 친구들을 보면 아주 답답해요 그럴 때면 선생님은 우리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하지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성이 한 씨고 우리 친정 엄마도 한 씨라 난 선생님을 우리 이모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랑 나랑은 띠 동갑인데, 선생님이 나보다 어리시지만 난 선생님을 이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의지가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 엄마가 한 선생님 만나라고 날 공부 안 시켰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어려서 정말 너무너무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한테 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지배가 무슨 학교냐며 작대기를 들고 뒷동산까지 쫓아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선생까지 한 양반인데, 세상에 딸들만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내 위로 오빠는 선생이 되었어요. 아들들은 고등학교 이상 다 공부시켰고 내 아래 여동생 둘은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나만 학교에 안 보낸 거예요. 맏딸이라고 나만. 한번은 내가 지지배는 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지지배 공부시키면 시집 가서 쫓겨온다, 그러시더라고요.

동생들이 학교에서 책보를 메고 막 뛰어오면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양철필통이라 필통 안에 연필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소리가 났던 거예요. 난 그 소리가 너무 부러워서 동생들이 집에 책보를 갖다 놓으면 연필은 곯을까봐 꺼내 놓고, 공기 놀이하던 자갈을 한 움큼 필통에 집어넣고 책보를 메고 막 뛰었어요. 달그닥달그닥, 달그닥달그닥. 방에서 혼자 얼마나 뛰었나 몰라요. 그러다 엄마가 일하라고 부르면 깜박하고 자갈을 못 꺼내 놓잖아요. 그럼 동생들이 내 필통에 왜 자갈이 들었어? 그래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 하다 넣었어 도로 쏟아놔, 그냥 그랬어요. 아니, 자갈을 왜 넣었는데? 다시 물어도 난 동생들한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밥하려고 아궁이에 짚불 떼면서는 동생들 책 보고 대여섯 글자 따라 쓴 종이를 태워요. 그 종이 태운 재를 사발에 넣고 물에 말아 호로록 마셨지요.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린다기에 그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골에서 죽어라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끝나는데, 몇 자 끄적거린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끝내 한글을 못 깨쳤어요. 나이가 다 차서 중매가 들어와도 나는 공부가 하고 싶어 산으로 도망가 숨고 그랬어요. 그러다 내 나이 스물한 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됐지요.

우리 고모가 3월에 중매를 서,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어요. 시집가던 날 동네사람들이 다 신랑 잘 만나 시집 간다, 신랑이 똑똑하다, 그랬는데 똑똑하긴 뭐가요. 완전 술 똑똑이를 만났네요. 주정뱅이 탁주꾼을 만나서 고생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두어 달 됐나 싶을 때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맏동서가 하는 말이 결혼시켜서 어깨를 무겁게 해주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집에 안 들어오고, 월급도 안 가져오고.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 자기 몸을 감당을 못했어요. 매일 인사불성으로 방에다 오줌을 절절 누는데, 오줌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결혼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벌써 암만해도 이 사람이랑 계속 살면 내가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결혼하고서 이듬해 봄에 배 속에 우리 큰딸이 들어선 거예요. 아유, 난감하더라고요. 애기가 없으면 소리 없이 도망가면 되는

데, 앞이 캄캄했어요. 오죽하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애기 유산시켜줘. 그럼 내가 소리 없이 사라져서 가족한테 피해 안주고 살게, 그랬겠어요. 엄마는 펄쩍 뛰면서 남편도 자기 새끼 낳고 철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버지 알고서 뒤지게 혼나지 말고 가만 있으라 그랬죠.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내가 도망쳤으면 지금까지 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 생각에 엄마가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내 나이 마흔일곱, 우리 막내딸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애들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52세에. 술 마시러 나간 지 한 달만에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지요. 그해 눈이 무지 많이 왔는데 눈길을 달리고 달려서 데리고 왔더니만, 이틀 만에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고생을 시키다 가서 그런지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내가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냥 애들 결혼시킬 때 어떡하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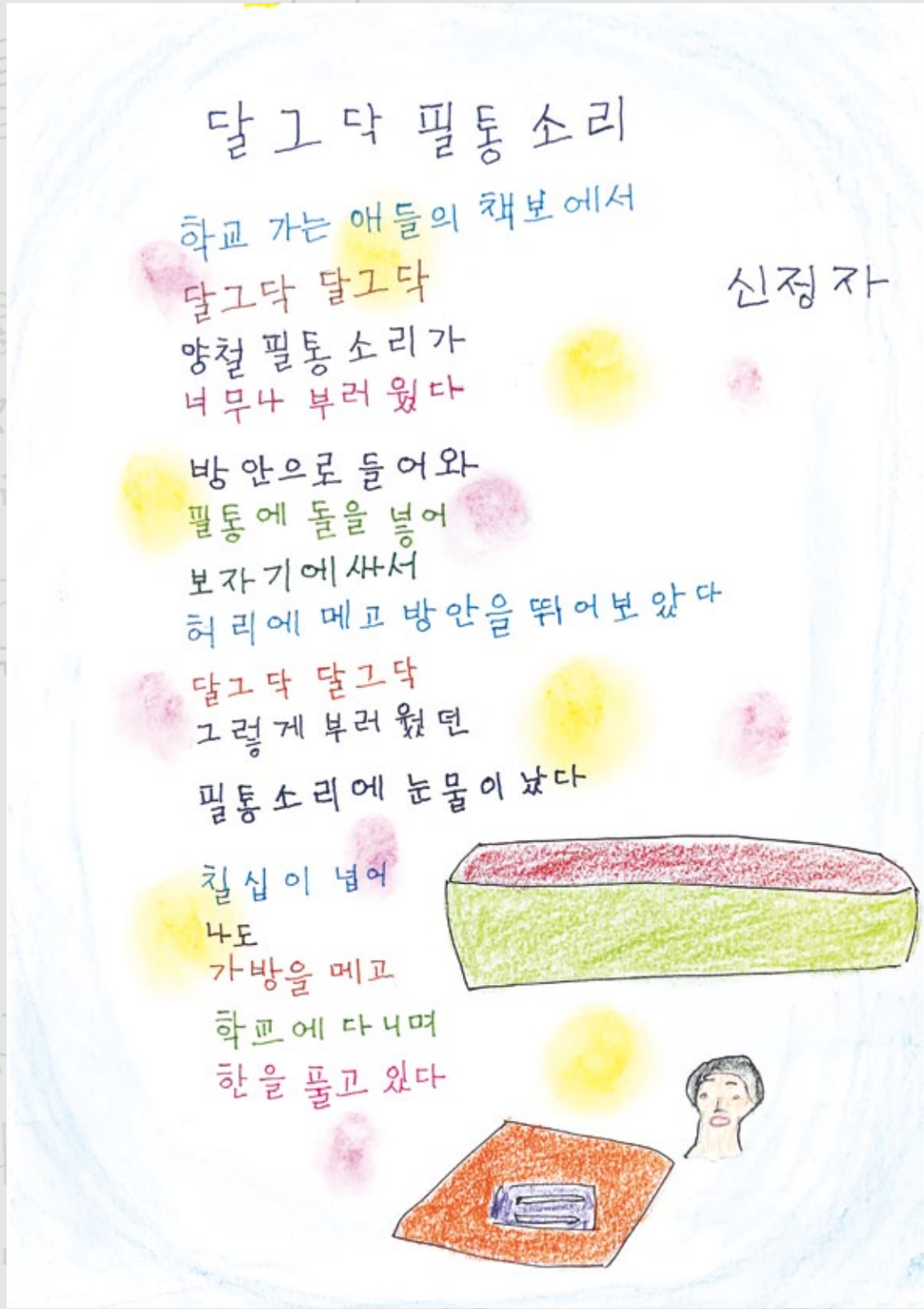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둘째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그때 도망갔으면 우리가 없잖아. 그래요. 맞아요. 자식들 바라보며 끝끝내 살다 보니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거지요. 사남매 다 무탈하게 잘 컸고, 착한 며느리 덕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가 글도 읽고 쓰고 이렇게 시도 쓰네요. 우리 둘째 딸이 그래요. 엄마가 그런 남편을 두고도 우리 데리고 현명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서 우리도 현명하게 잘 산다고, 고맙다고. 우리 둘째 딸은 어려서도 내 마음이 조금 상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편지를 써서 집으로 붙였어요. 지금도 나는 그걸 한 장도 안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얼만 전에 그걸 꺼내 한 자 한 자 읽어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또 그 편지 보고 울었지? 그거 찢어버려. 딸이 그러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딸한테 답장 한 번 써주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 글씨로 답장도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우리 선생님은 글쓰기를 참 많이 시키세요. 편지지 같은 종이를 주시면서 집에 가서 하루 중에 있던 일이나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을 쓰라고 하시는데, 아마 내가 진작에 글을 쓸 줄 알았으면 난 아마 책을 수십 권은 썼을 거예요. 나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틀려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열심히 써서 선생님한테 내지요. 내가 써온 글에 틀린 글자가 정말 많을 텐데도 선생님은 어찌나 찰떡같이 알아먹고 그걸 읽어주시는지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맞게 고쳐 쓴 글을 돌려주시면서 똑같이 다시 써보라고 하시죠. 그러면 처음에 엉망으로 보이던 글도 이젠 잘 갖춰진 글로 보여요. 그렇게 쓴 글들을 교실 벽에 한 장 한 장 붙여두는데, 우리 반에서 내가 쓴 글이 제일 많이 붙었을 거예요. 아직도 쓰고 싶은 글이 차고 넘쳐서 종이가 다 모자라지요.

나는 베개가 젖도록 참 많이도 울면서 살았어요. 밤에 장사 나가면 시장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물어요. 그러면 난 아유, 땀 흘리고 자서 그려 그러고 말아요. 남편이 죽었어도 절대 죽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남이 혹여 업신여길까 절대 안 했죠. 괜히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다닌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줄 알고 은행 같은 데 혼자 다니면서 글을 쓸 줄도 알게 되니까 구태여 여기 배우러 다니는 걸 비밀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배우는 건데요.

학교에 오면 내가 잘하든 못 하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일찍 와서 책을 읽어주길 바라는 친구들이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 반 사람들끼리 그래요. 졸업을 해도 우리는 꼭 만나야 한다. 방학 동안에도 전화가 몇 번씩 와요. 더운데 공부만 하지 말고 몸 관리하라고. 전에는 장사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더 바빠졌지요. 몸은 좀 고되지만 참 재미있어요. 이제 반 년만 더 있으면 졸업인데 벌써부터 아쉬워요. 여기서 일 년만 더 배우면 뭐든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이제 반 년밖에 안 남았으니.

며느리는 여기 졸업하면 중학교 과정을 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중학교 과정을 하려면 장사를 놓아야 되는데 나는 일도 몇 년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부한 교과서를 다 모아두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집에서 복습을 완전히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글씨를 죄다 따라 쓰면서 익히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일기도 연습장에 매일 쓰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말 되는 것은 두고, 말 안 되는 것은 다시 고쳐 써 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말 되는 것만 줄줄 쓸 날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때인가는 되겠지요. 나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 뭐든 되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



내 곳간에 배움의 보따리가 쌓여요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상(세종문화회관 사장 상)

송경자 | 청양군 초롱불 문해교실

“우리 공부하는 데 앞에
아름드리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고목을 닮은 우리 셋이서 가나다라,
신나게 읊어대는 꼴이 남들 눈엔 어떻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오늘도 가나다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내 이름은 송경자. 나이는 올해 일흔아홉 먹었네요. 내 평생에 이게 웬일이래요. 젊어서 못 배우고 이렇게 나이 먹어 상이란 걸 다 받아보네요. 수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얼떨떨했어요. 마음이 좋기도 하고 남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요. 마을사람들이 출세했다고 꽃값 내라고 성화인데 정말 한번 밥이라도 사야 할 판이에요.

내가 공부를 시작한 지는 4년 되었어요. 좀 더 일찍 글을 알았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았겠지요. 그렇게 책을 썼으면 열 권도 솔찬히 넘어버렸을 거야. 우리 바깥양반은 충남대학교 국문과를 나와서 기자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뭘 쓰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지요. 누구든지 못 배운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웠어도 누구 앞에 가서 꿇고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르는 건 그냥 덮어놓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더 셌지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늙어서라도 배우는 게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어 시도 다 써보고 상도 받고 좋게 되었지요.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뒤돌아 까먹어도 일주일에 두 번 여기서 공부를 해요. 글자도 배우고 셈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박물관에 견학도 가요. 다 늙어서 낯부끄럽게 뭘 배우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하나 배울수록 모든 게 다 새롭고 재미있던 걸요.

나 어릴 때는 전쟁도 나고 난리통이라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해도 살기는 살더라, 너희들도 공부할 거 없다”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우리 오빠도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 걸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 나는 학교 문턱도 못 넘어봤어요. 오빠가 학교 다닐 때 골이 나면 아침을 안 먹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오빠 배 곯겠다면서 나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학교 문턱을 넘어본 적은 있네요.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번 안 해봤어요. 큰딸은 살림밑천이라고 해서 더 안 가르쳤으니까. 아버지 졸아다니면서 농사짓고 길쌈하고, 집안일을 내가 최고 많이 했지요.

내 나이 스물두 살에 작은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보고 청양군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땐 다 그랬지만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지요. 우리 바깥양반은 기자 생활하느라 대전에 가서 살고, 나는 시댁에서 자식 낳고 농사 짓고 시부모 모시며 살았어요. 우리 바깥양반은 영락없는 선비라 젊어서도 농사 한번을 안 져봤어요. 꽤 많던 논밭은 젊어서

다 내다 버렸고, 내 손에 생활비를 갖다 준 적도 한 번 없는 사람이지요. 어느 날인가 내가 대전에 올라가 보니 석 달 하숙비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 가지고 올라간 거를 다 팔아서 내주고 왔어요. 돌아보면 내가 마음고생을 좀 하고 살았네요.

대전에 올라가서 남편이랑 살다가 이리 다시 이사온 지는 18년 됐어요. 여기가 남편 고향이니까 돌아왔지요. 사람이 나이 들면 고향을 찾잖아요. 남편이 살살 꼬시는 바람에 옛날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 이리 이사 왔어요. 젊어서는 은행 일이든 세금 내는 일이든 남편이 다했지,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젠 여자들도 싸게 싸게 배워야 해요. 둘 다 나이 먹으니 누가 먼저 돌아갈지 모르는 거니까. 얼마 전에 선생님이랑 읍내 농협에 가서 통장도 만들었어요. 이젠 나 스스로도 다 할 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저씨가 어느 날 그러대요. 그래도 공부한다고 다니더니 신사임당 얼굴도 알아본다고. 남편도 내가 공부하러 다니는 걸 그럭저럭 좋아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안 하니까 여기 나와 있지 뭐라고 하면 여기 못 오지요. 지금은 뭐 할 일 다 해놨으니까, 뭐라 할 것도 딱히 없지만요. 얼마 전엔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딸네가 데리고 갔는데 솔직히 말해 밥하기 싫어 냉큼 간다고 했지요.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내가 없으니까 쓸쓸하고 안 좋죠? 조석 때 되면 뭘 먹어야 되나 걱정되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혼자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고. 내가 없으니 그냥 적적하더라 하면 어디 덧나나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끝까지 그 말은 안 하대요. 조석 때마다 식사 갖춰주는 마누라가 있는 게 좋지, 끼니마다 자기 손으로 해 먹는 게 뭐가 좋아요. 그래도 젊어선 전혀 안 하더니 요즘엔 스스로 밥도 잘하고, 나름 노력은 좀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사람이 좀 변하기는 변하는가 봐요.

우리 애들도 내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요번 시에 더 많은 내용을 쓰고 싶었는데 시는 보통 짧게 쓰는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첫째 딸이 지난 가을에 일을 거들어 주려고 왔는데, 엄마가 글씨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보여줬더니 아이고 우리 엄니 글씨 잘 쓴다고, 우리 엄니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글 모를 때는 전혀 안 써놓았는데 이제는 찾기 쉬우라고 봉지봉지마다 이것에는 뭐가 들었다, 하고 써놔요. 글 좀 배웠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요. 전에는 그냥 담아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뭐가 뭔지 몰라 봉지봉지마다 열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씨를 다 써놓아서 척 보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지요.

시에도 썼지만 옛날에는 내가 글을 잘 모르기도 했고, 농약병은 글씨가 워낙 작게 써 있어서 읽으려고 암만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 약이나 썼다가 농사를 망친 적이 있어요. 겉만 대충 보고 약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많이 속상

했어요. 내가 못 배워서 이렇구나, 자책을 많이 했지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요. 돋보기 쓰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알아요.

나는 학교는 못 다녔어도 구구단은 진작에 외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오빠가 공부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외웠어요. 그런데 그 구구단이란 걸 어디다 써먹는 건지는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알겠대요. 팥이 한 대에 오천 원이라고 하면 몇 대를 팔면 얼마구나, 구구단은 그런 데 쓰는 거더라고요. 달달 외우기만 외웠지 난 여태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오빠를 닮아서 그런지 나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우리 오빠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셈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걸 내가 닮은 거 같더라고요. 나는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좋아요. 요즘엔 천의 자리 숫자를 받아 올리고 내리는 계산을 배우는데, 그거 푸는 게 참 재미있어요. 남들이 들으면 팔십 평생이 유치원생이라고 놀리겠지만 죽기 전까지 배우면 유치원생 딱지는 떼고 가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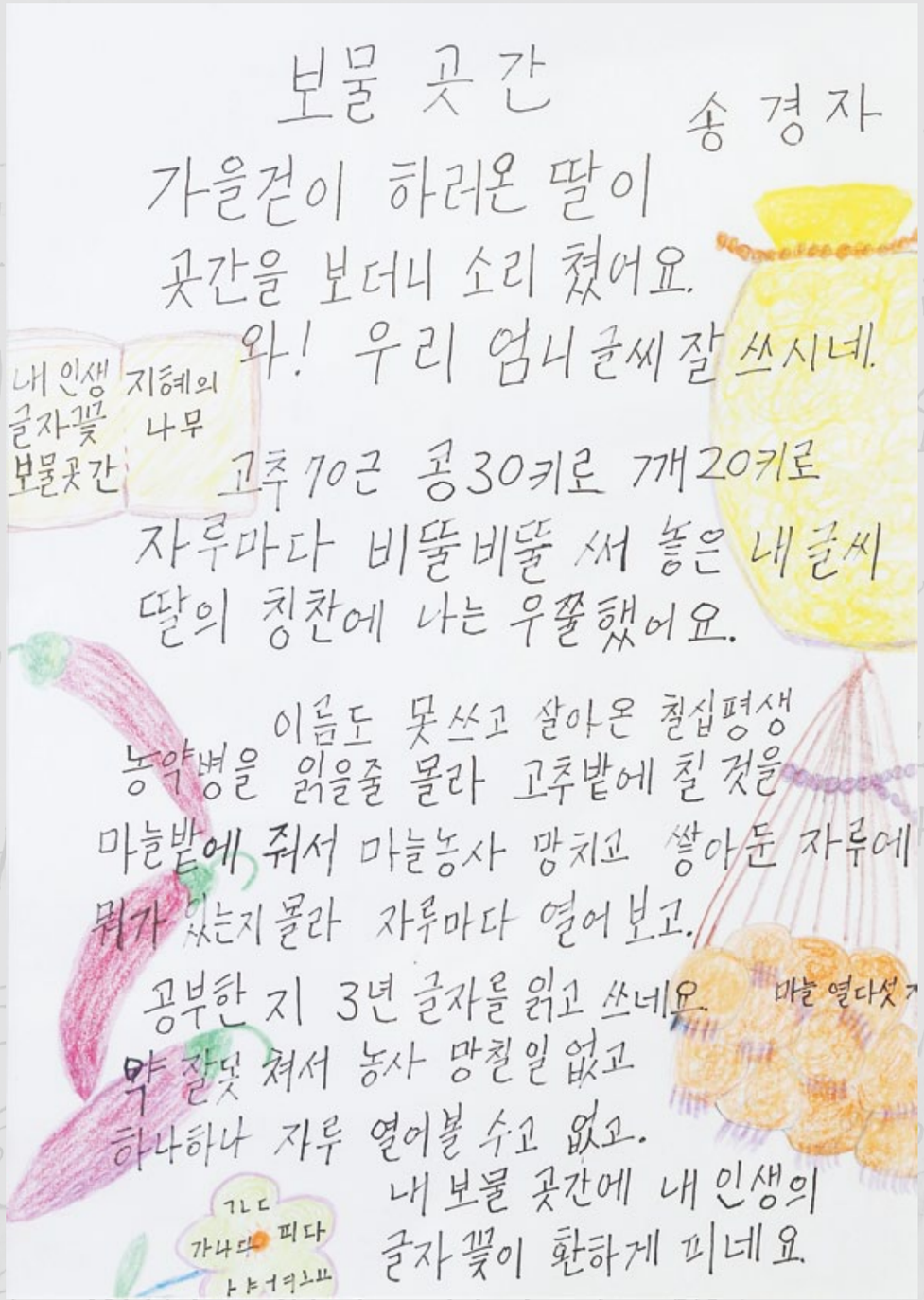
지난 연말에는 우리 오빠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미국 사는 손자한테도 썼는데 그건 끝내 안 붙였고 오빠한테만 보냈는데, 오빠가 편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반가우셔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공부해서 편지를 다 썼네, 잘 썼다 그러셨지요. 오빠 요즘은 어떠신가요,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신가요 그런 걸 썼어요. 배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아요.

요즘엔 영어도 배우는데 대문자로는 써도 소문자는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암만 잘 가르쳐주셔도 머릿속에 영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젠 더듬더듬 읽을 줄은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집 대문에 달린 CCTV라는 알파벳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읽었다고 선생님한테 자랑을 늘어지게 했더랬어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스스로가 대견하지요. 물론 아직도 받아쓰기를 하면 어려운 건 자꾸 틀려요. 어려운 받침이 들어간 글자는 한 번 쓰고 두 번 써도 틀리니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건 젊은 사람들도 잘 틀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셔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잘 틀린다고 다독여 주셔서 그래도 기운이 좀 나요. 쉬운 건 나도 잘 맞히니까 괜찮고, 어려운 건 다들 어려워하는 거니까 좀 틀려도 또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하고는 4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성격이 참 칼칼하고 좋으세요. 나이는 우리보다 한참 아래시지만 어렸을 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뭐 비슷하대요. 선생님도 예순이 넘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기는 시골 한구석이라 변변한 식당도 없잖아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읍내에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게 아쉽지요. 읍내에서 20분 30분씩 걸리는 거리를 달려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이 기회를 빌어 선생님께 참으로 고맙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대여섯 명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그만둔 이도 있고 두 분은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은 셋이서 공부를 해요. 학생도 몇 명 안 되는 이곳까지 선생님이 빠짐없이 와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내가 그린 그림이나 쓴 글을 보고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다고 그러셔요. 그렇게 무한정 칭찬을 해주시니 신이 나서 공부하는 거지요.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더 악착같이 공부해보고 싶어요. 글도 더 쓰고 싶고, 셈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는 요 머리가 영 안 돌아가네요. 뒤돌아서면 언제 배웠냐는 듯이 금방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쉰 살만 됐더라도 공부를 더 해볼 건데, 가는 세월이 그저 허망하고 아쉽지요. 그래도 늙은 처지에 같이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공책에 한 가득 쓰고 또 쓰고, 다 지난 달력 뒷면에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우리 셋은 성격이 또 얼마나 잘 맞는지, 사람 성격이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으르렁거리면 같이 공부 못하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옆에 친구가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겠지요. 그럼 나는 내가 잘하지, 네가 잘하냐 그러면서 깔깔깔 웃고 떠들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학생들이 학교 쉬는 시간에 토닥토닥거리던데 우린 나이 팔십 먹어 이제야 여학생들마냥 앉아 토닥토닥 농담 따먹고 있어요.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 날마다 재미지게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공부하는 데 앞에 아름드리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고목을 닮은 우리 셋이서 가나다라, ABCD 신나게 읊어대는 꼴이 남들 눈엔 어떻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오늘도 가나다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다가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걸 이 나무 밑에서 오롯이 보면서 가나다라 하고 ABCD하고 더하고 빼고 구구단을 외워요. 읽고, 쓰고, 웃으면서 우리는 또 한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배움이 나를 활짝 웃게 합니다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자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상)

박정용 |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침상에 앉아 상을 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들이 힐끔힐끔
보는 것도 창피한 줄 모르고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게
더 창피한 일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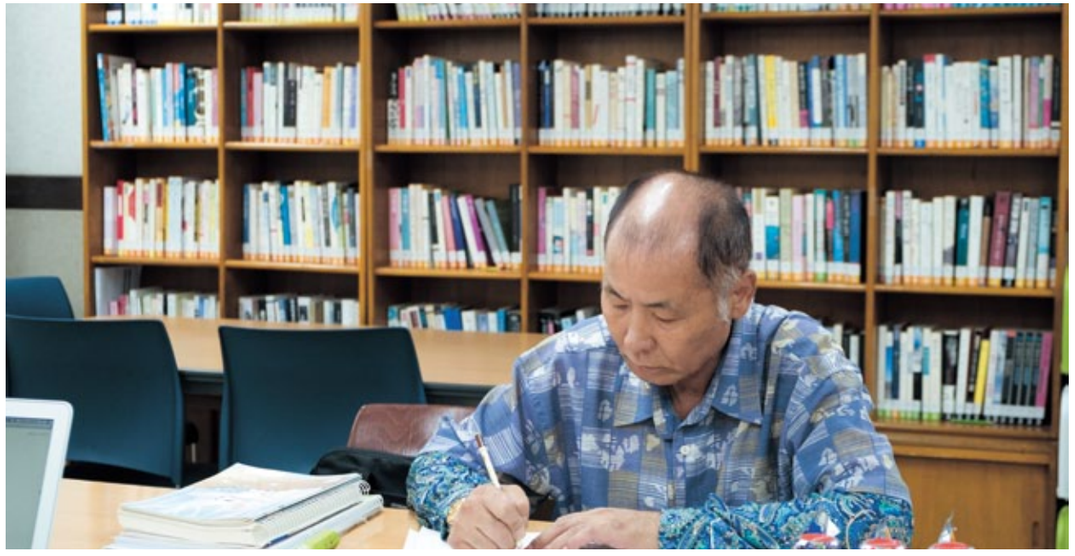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사는 박정용입니다. 나이는 54년생으로 올해 예순셋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닌 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데, 어느 날 이곳을 지나다가 못 배운 사람들을 교육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날로 무작정 찾아와 배우게 됐습니다.

나는 어려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평생을 남한테 글씨 조금 배운 걸 기반으로 살았습니다. 내 아래로 동생이 셋 있는데 가정형편이 안 좋아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지요. 못 배운 무학자라 취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뜨내기 장사나 하고 노가다 일을 하며 근근이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을 조금 했는데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 양말을 떼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 많은 데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지요.

나는 신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여섯 시간을 꼼짝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오가는 시간까지 합쳐 넉넉잡고 일곱 시간을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젊어서는 아픈 걸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겼지요. 신장이 나빠진 건 10년 정도 되었고, 혈액투석을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어떨까 했지만 그것도 나이가 있는 바람에 어렵고, 의사가 해봤자 돈만 내버리는 꼴이 될 거라 하더군요. 금방 또 재발될 거라고.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속상하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지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저 이 정도에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병원에 가서 보면 중풍에 걸리고 눈이 먼 채로 혈액투석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내가 아픈 건 양반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뭐만 잘못 먹어도 까딱하면 아프거든요. 25일 정도를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기 참으로 무료해서 거기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있으니 복지관에 나와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게 참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침상에 앉아 상을 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병실을 오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들이 힐끔힐끔 보는 것도 창피한 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게 더 창피한 일이니까요. 여기 다니기 전에는 몸이 안 좋으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할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글도 쓰고 한문도 쓰고 영어 공부도 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르겠네요.



아프기 전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마음이 있어도 배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봐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내 생각에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글씨 배우는 분들을 보면 아들딸 다 키우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 반에 15명 정도 되는데 나보다 연세가 대부분 많으시고 다 여자분들이지요. 내 또래의 남자들은 글씨를 배우러 왔다가도 생계가 곤란하니 일하러 다니느라 오래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나도 몸이 건강했다면 이렇게 배우러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바람에 이렇게 노상 공부만 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몸이 아픈 게 어찌 보면 덕이라면 덕입니다.

공부를 하니까 좋기는 많이 좋아요.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공부하면 치매도 예방이 된다니 좋지요. 우리 선생님은 아주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가벼운 율동이나 체조도 가르쳐 주시니 운동이 되지요.

사람은 배울수록 똑똑해진다고 배우면 배울수록 남들 앞에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게 되고, 용기도 생기는 것을 체감합니다. 못 배웠을 때 나는 항상 남 앞에 주눅이 들어 있고, 남이 뭘 물어볼까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표정하게 지냈지요. 나는 웃으면 안 그런데 안 웃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말 한번 거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인상이 어둡고 무서워 보인다고들 했지요. 그런데 웃으면 사람들이 내 인상이 좋다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니면서 나는 웃기도 자주 웃고, 자주 웃다 보니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친화력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반장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치셔서 나는 선생님을 따라 복지관에 이틀, 초등학교에 사흘 이렇게 일주일에 5일을 공부하러 다닙니다. 와중에 월수금 세 번은 병원에 가야 하고 주말엔 교회에도 가야 하니 한 주가 억수로 바쁘지요. 물론 아픈 몸에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사람은 정신력으로 사는 거니까, 병원에서 한잠씩 자고 그러면 그럭저럭 다닐만합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배우면서 마음이 좋으니 힘든 줄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글을 못 배웠을 때는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남한테 길을 물어 물어 찾아가야 했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도 물어봐야 하고, 버스는 어디서 타야 하는지, 병원 수속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모르니까 남한테 무시를 당하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글 모르면 진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려면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제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돈을 맡길 때도 찾을 때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일반사람한테는 혹시 사기를 칠까 무서워 물어보지 못하고, 은행 직원한테 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름도 쓰고 숫자도 적을 수 있으니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기회가 없어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세월이 정말 눈깜짝할 새 가버렸지요. 그래도 근처에 형제들이 살고 우리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니, 그렇게 외로운 줄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는 간혹 사는 게 외롭다 생각할 때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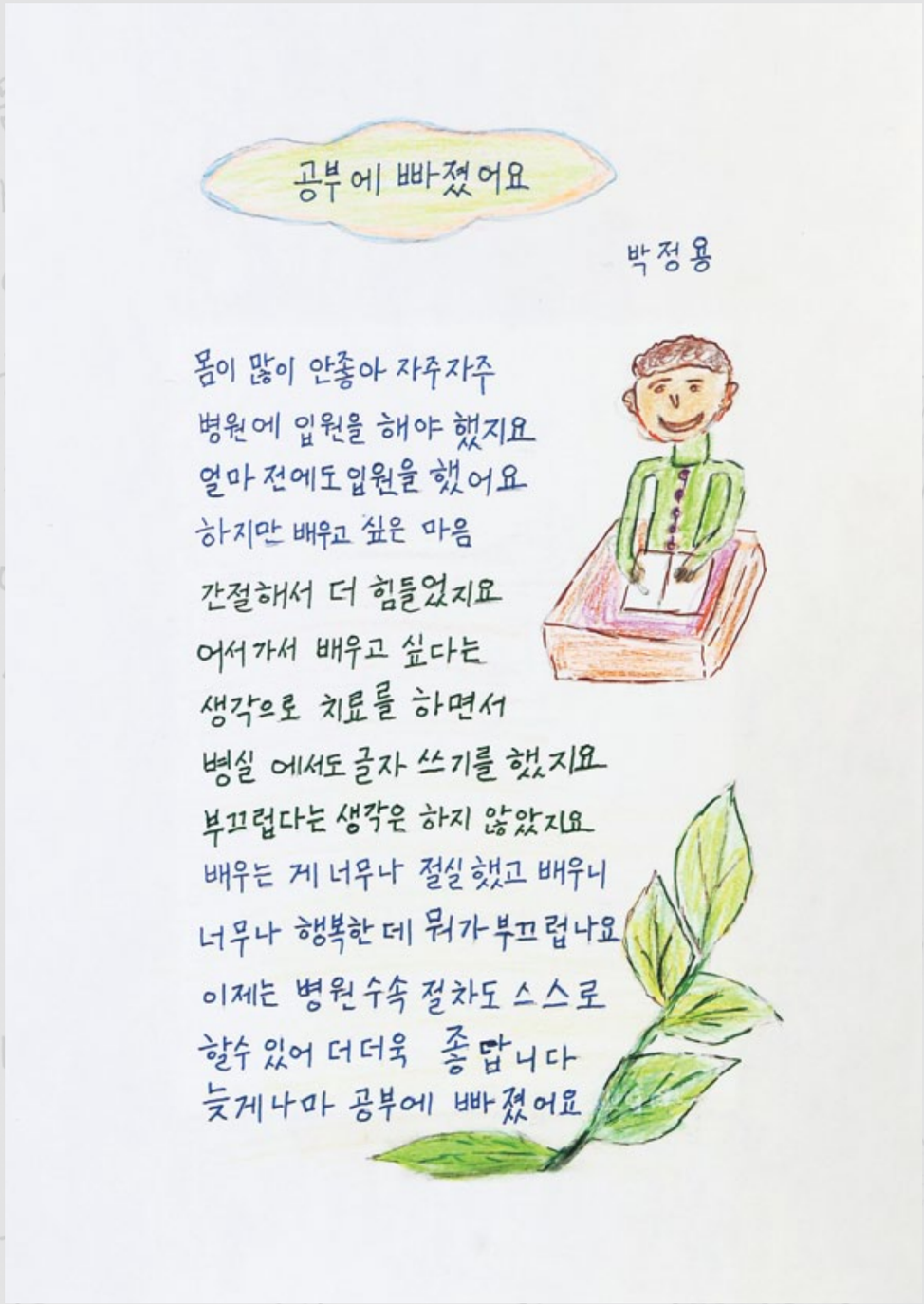
글을 배우고서 우리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이 몸까지 아파 어머니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죄송하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을 읽으실 줄 아니까 내가 쓴 편지를 읽어 보셨겠지요. 아들이 백발 성성한 나이에서야 글을 쓰게 된 것을 보고 여든여덟 살 잡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헤아려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열심히 배워라 배워라 하십니다. 사람이 배우면 태만하지 않다고 아들이 늦게나마 공부하러 다니는 걸 아주 기특해하시지요.

남들은 공부하면서 한글 받침이 어렵다, 한문이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 하지만 나는 배우는 게 좋아서 지금까지 뭐 하나 어려운 지를 모르고 그저 술술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글은 웬만큼 다 알게 되어 요즘엔 한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자 음을 큰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공책 두 바닥 정도를 꽉 채워 쓰면 한 글자를 어느 정도 외우게 됩니다. 어려운 한자야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지만, 쓰기 쉽고 생활에서 많이 보이는 한자는 금방 금방 외우게 되지요.

사람들이 내가 쓴 공책을 들춰보면 다들 놀랍니다. 글씨가 예뻐서 여자가 쓴 것 같다고도 하고, 꼼꼼한 성격이 공책에서 보인다고도 말합니다. 이번에 수상하는 시화를 보고도 여자가 쓴 건가 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공부하는 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창문을 다 열고 집에 가만히 앉아 글씨만 쓰는 데도 등허리에 땀이 주르륵 흘러서 애를 먹었지요. 얼마 전엔 날이 더워 방학을 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자니 못 견디게 심심하더군요. 얼른 날이 선선해져서 복지관 사람들하고 어울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았습니다.

올해 12월에 나는 3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나는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과정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준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려면 영어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지요.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산수는 그럭저럭 잘하고 걱정이 없는데 영어가 특히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싶습니다. 요새는 역사책 읽는 재미에 빠져서 백제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가만히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참 많이 슬프더군요. 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주로 봤는데 이제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달리 공부가 아니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공부구나 그런 생각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몸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나는 남은 생을 세상에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통 정리하는 봉사를 가끔 하는 정도인데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테면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지요. 나는 어렸을 때 못 배웠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늘 꿈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학식이 부족해 우리 선생님 같은 진짜 선생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보다 나이를 더 먹은 분이나 나보다 더 아프고, 공부를 더 못 배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가나다라라도 차근히 가르쳐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개인지도를 해주면 한글은 금방 깨우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아직 그야말로 꿈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그 먼 길을 앞으로 더 배워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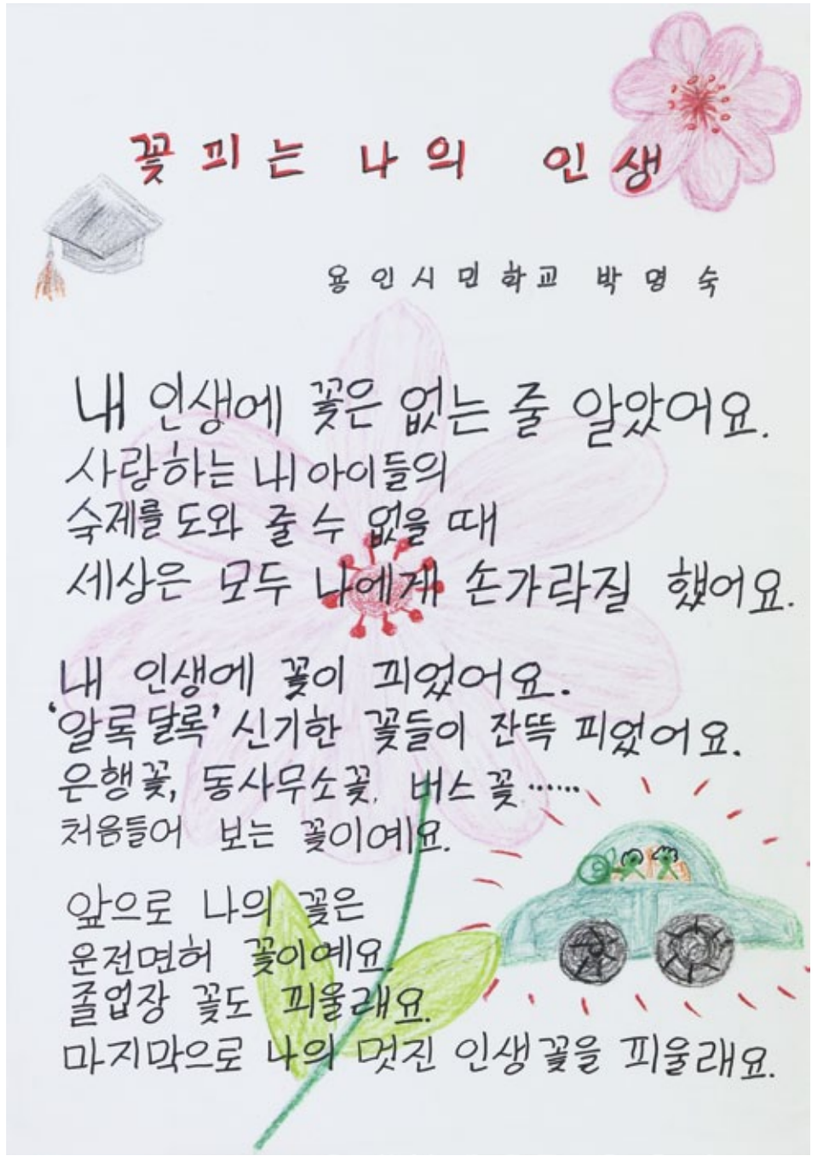


2016년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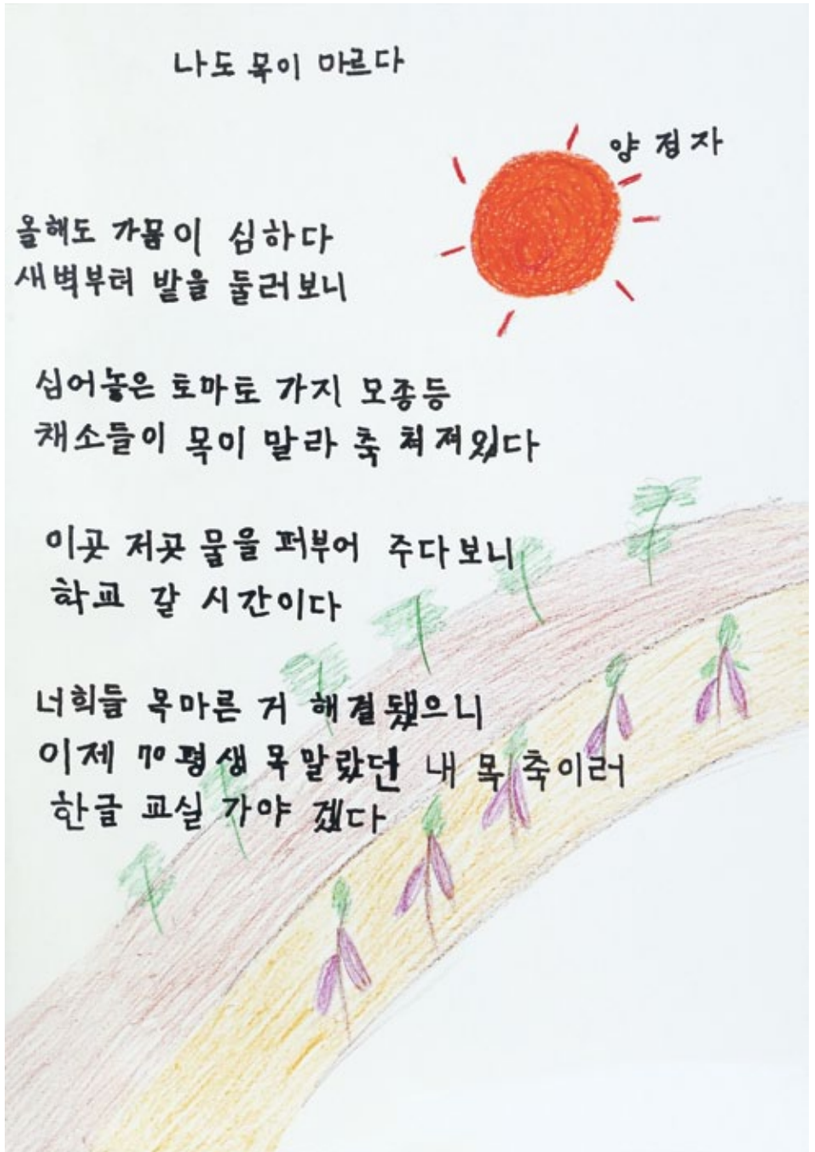
최우수 수상작

꽃피는 나의 인생 | 박명숙
나도 목이 마르다 | 양정자
내 눈이 바빠졌습니다 | 양소환
눈 감으면 | 박옥남
인생 업그레이드 | 고초강
잉글리쉬 꽃길 | 김동인
친구 | 김예순
콩나물 시루 | 이계례
한글 나무 | 박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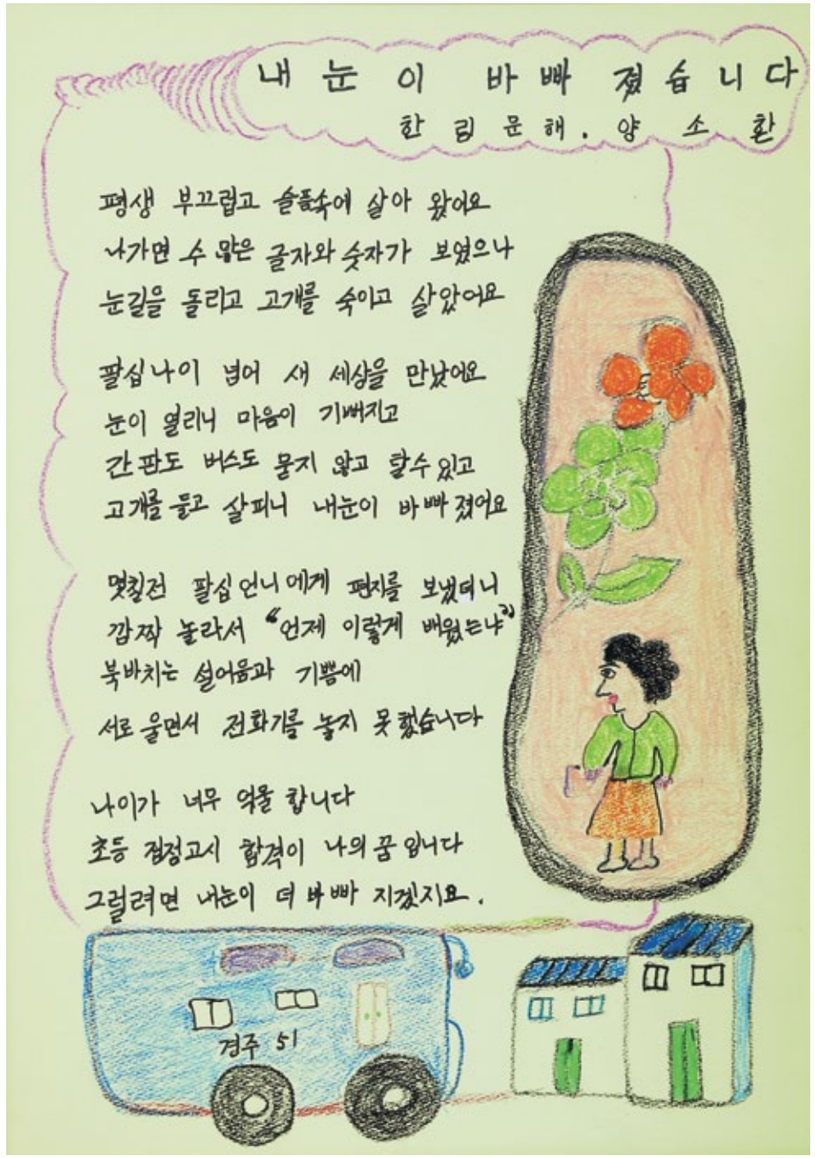
꽃피는 나의 인생
박명숙 | 53세
용인시민학교

어릴 때 몸이 아파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작가는 글을 몰라 자녀들의 숙제를 봐줄 수 없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문해교실을 다니고 난 후로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기쁘다고. 배움의 기쁨을 꽃에 비유하여 시화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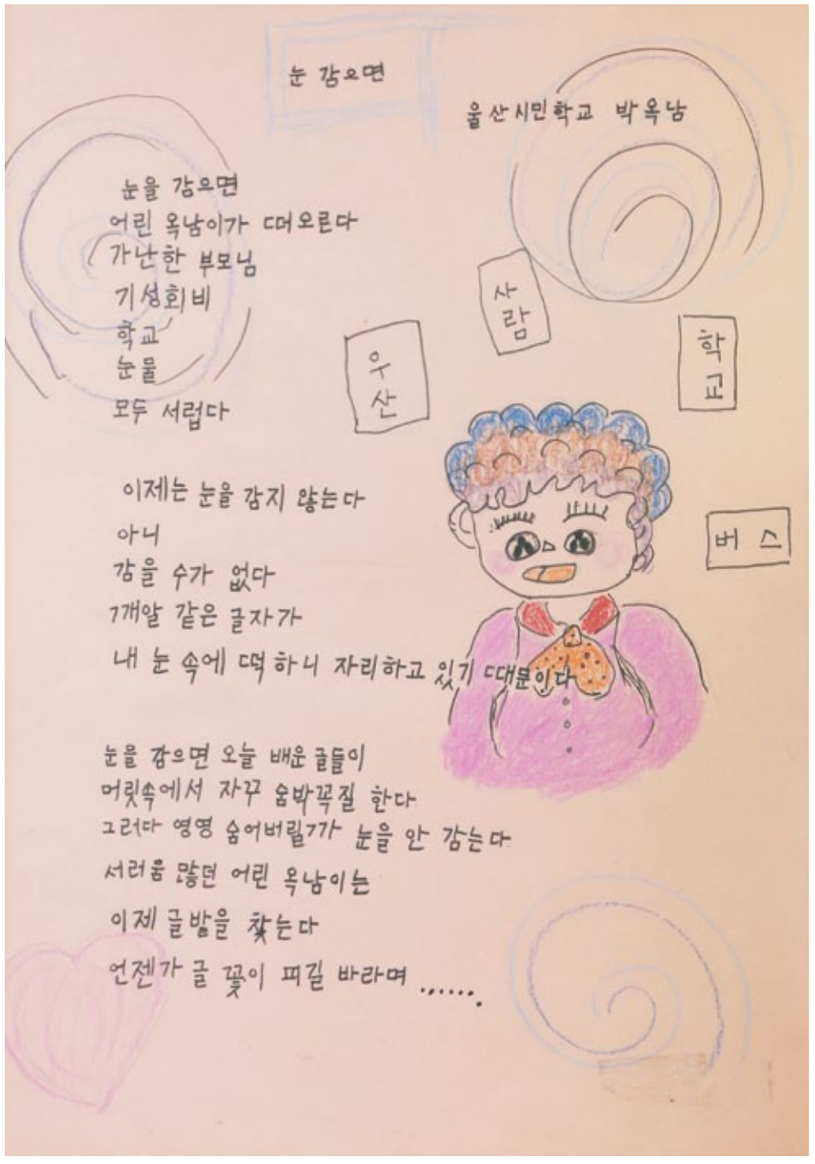
나도 목이 마르다
양정자 | 73세
진천군 평생학습센터
초등학력인정반

한글 공부 5년 차인 작가는 초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엔 문해교육이 생소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문 밭의 채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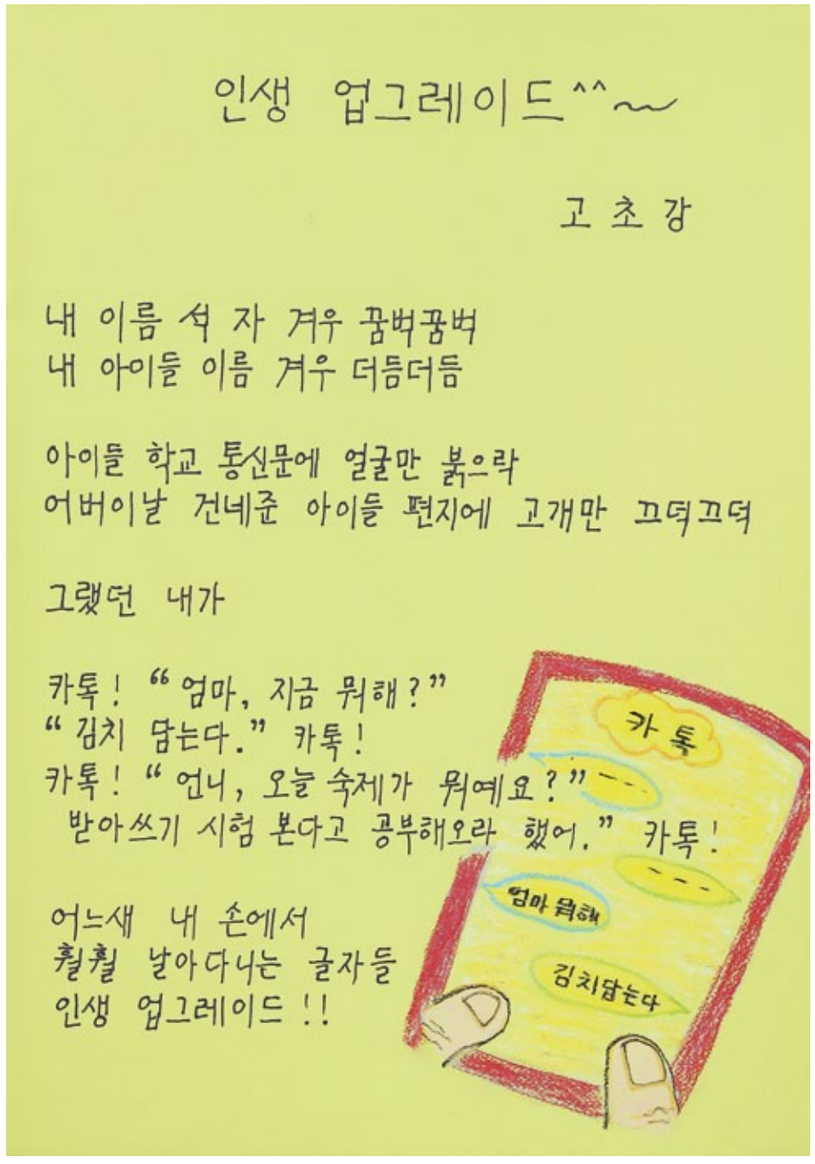
내 눈이 바빠졌습니다
양소환 | 78세
한림야간중고등학교부설
한림문해초등학교

글을 몰라 평생 서글픈 마음을 안고 살았던 작가는 이제는 글을 배워 기쁨 속에 산다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부모님 산소에 인사 가는 것이 소원이다. 글을 배우고서 읽을 수 있는 글씨가 많아져 눈이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시화에 담았다.



눈 감으면
박옥남 | 59세
울산시민학교

작가는 아침에는 밭에서 일하고, 점심에는 문해학교에 글을 배우러 다닌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던 기억이 서러워 결석 한 번 없이 다니고 있다고. 작품에서 글을 배우는 것을 글자와 숨바꼭질 하는 것으로 비유해 배움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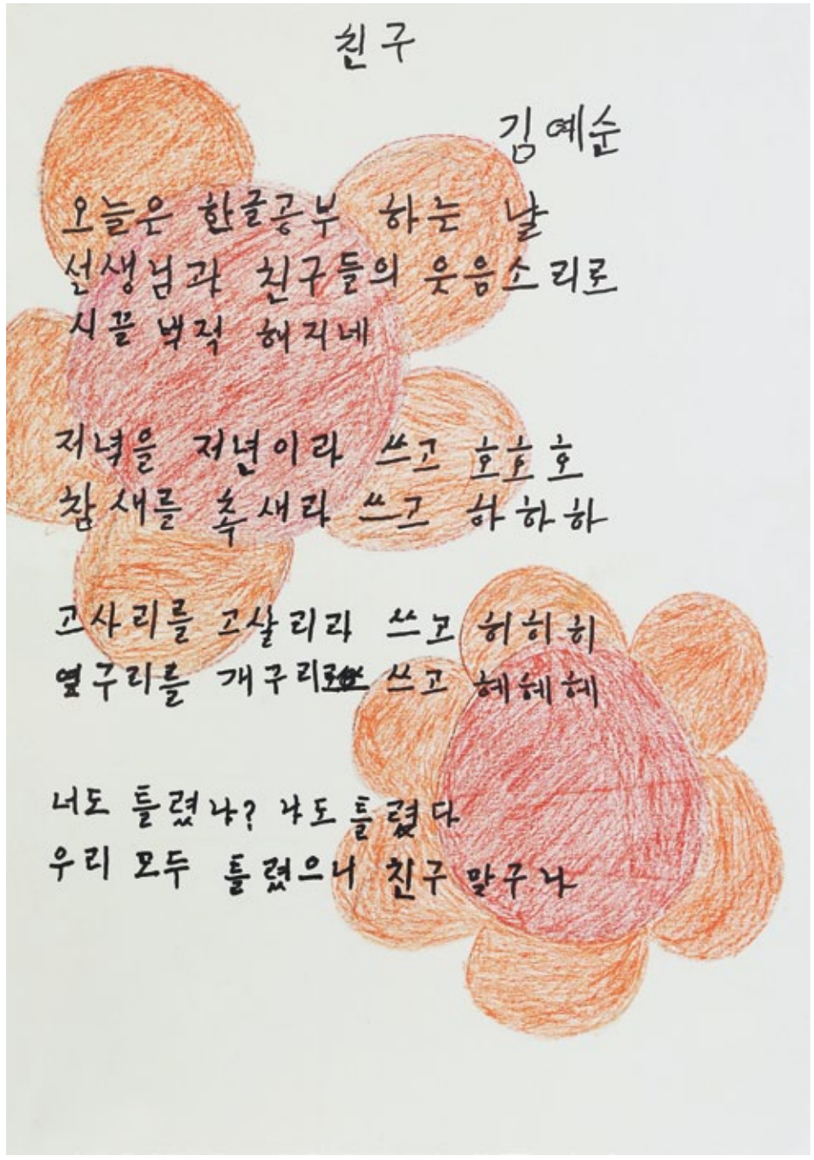


인생 업그레이드
고초강 | 79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작가는 어릴 적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지만, 해방 후 배움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다시 글을 배우는 것이 창피했지만, 학교에 다닐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시화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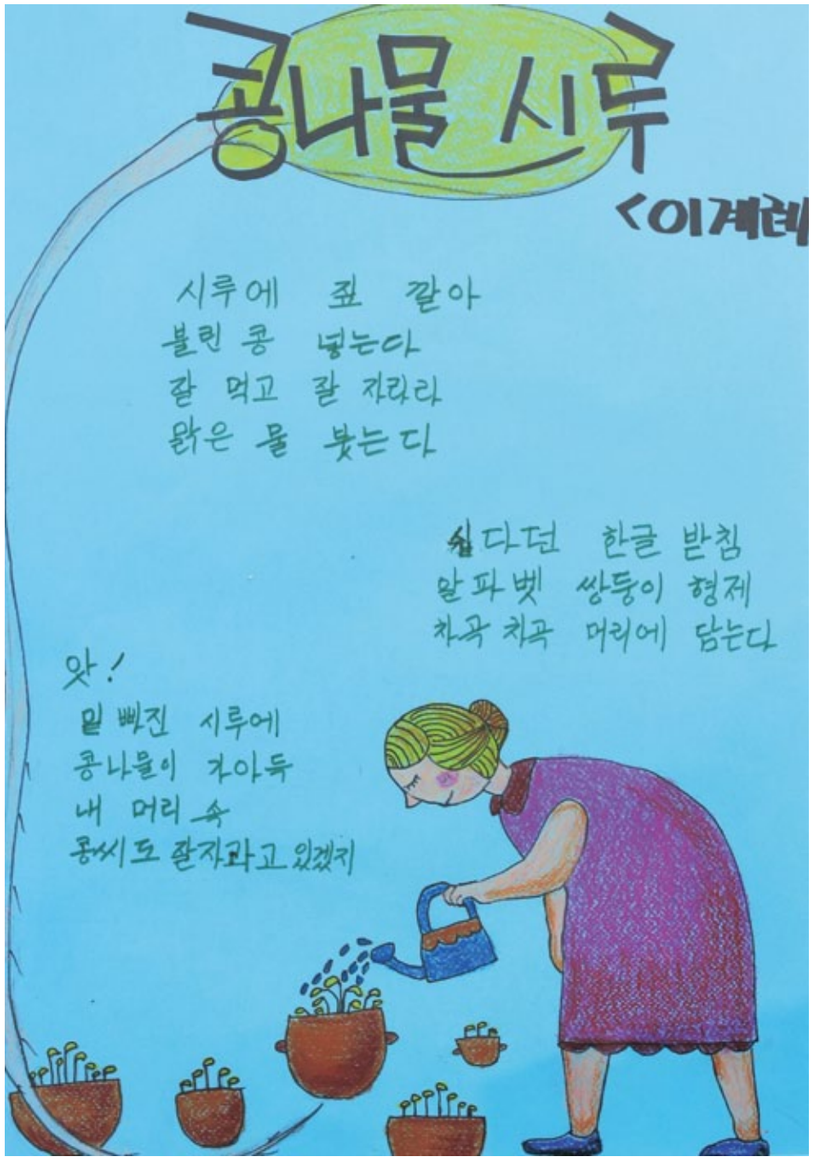
잉글리쉬 꽃길
김동인 | 70세
이천시 모가면
주민자치학습센터

글을 배우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작가는 예쁜 꽃보다도 한글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고 말한다. 문해교실에서 한글뿐 아니라 영어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꽃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배움의 즐거움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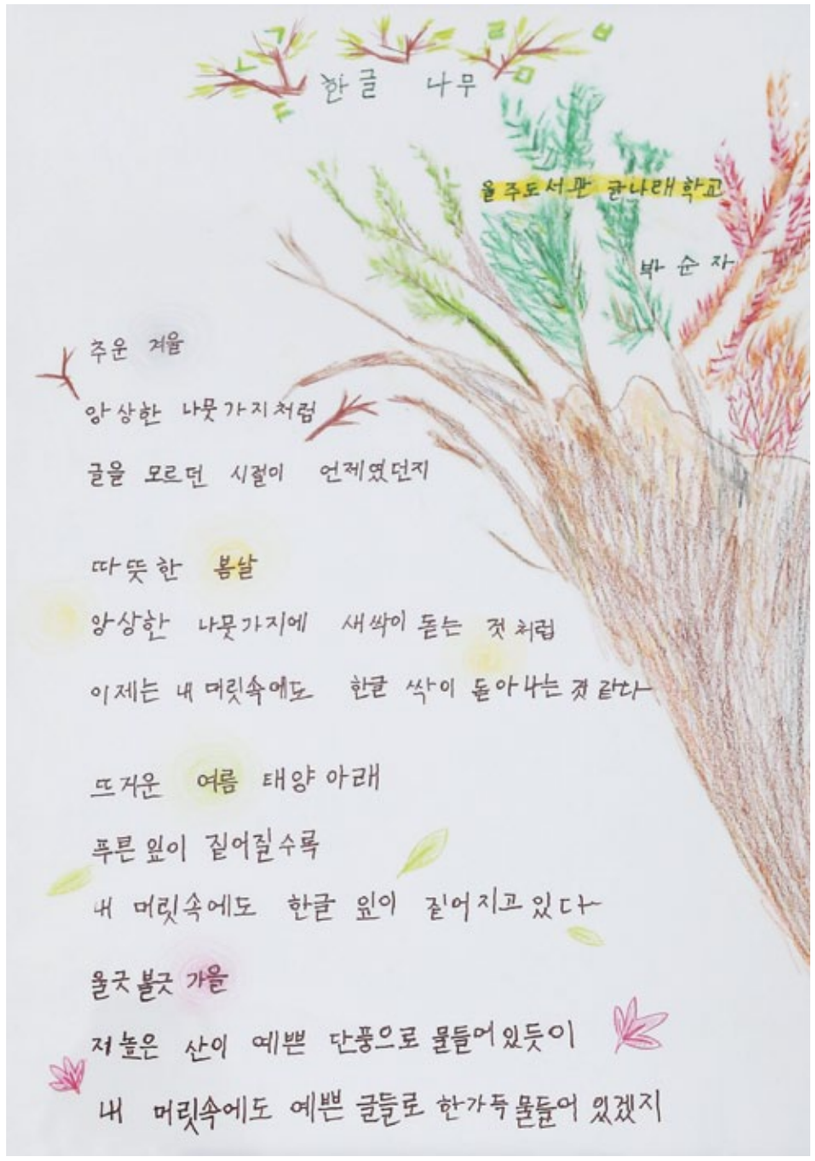
친구
김예순 | 77세
진천군옥동마을경로당

작가는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세 개나 배우러 다닐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다. 마을에 문해교실이 열린다고 했을 때 가장 반가워 했다고. 하하호호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한글 공부하는 풍경을 익살스럽게 작품에 담았다.



콩나물 시루
이계례 | 68세
광주월산성인문해초등학교

어릴 적 선생님이 가져다준 교과서를 아버지가 세 번이나 태울 정도로 집안의 반대가 심해 학교에 가지 못한 작가는, 책보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고. 콩나물이 자라듯 자신의 배움도 잘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시화에 예쁘게 담아냈다.



한글 나무
박순자 | 60세
울주도서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문해교실을 찾아온 작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수업 한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온다고. 자신을 계절에 따라 싹이 돋고 잎이 나고 단풍이 드는 나무에 빗대어 한글 공부의 성과를 그렸다.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평

한글을 배우며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맹문재 | 시인, 안양대학교 교수

문해학습자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작품은 모두 귀하고 귀합니다.
무엇보다 희망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박소명 | 동화작가

시에 기교나 멋이 아닌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있습니다. 글자를 익히고 글을 배워 시로 노래한 작품을 보면서 문해교육의 참뜻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신혜원 | KBS 작가

세월이 지나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접을 수 없었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 배움의 길에 접어들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글을 안다는 것은 읽고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읽고 쓰게 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작품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삶의 변화를 읽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재 | SBS 미래부 부장

이제 막 한글을 배운 어린아이들이 쓴 글 속에는 어른이 흉내낼 수 없는 '순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한글을 배운 늦깎이 학생들의 글 속에도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가 있었고, '순수'와 더불어 '인생의 비밀'까지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철환 | 소설가

주최 교육부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14개광역 거점문해교육기관
후원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협찬 KIZM (주) 키즈엠 STAEDTLER

광역 거점문해교육기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남부교육센터 · 마들여성학교 · (사)푸른사람들 |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수원제일평생학교 · 안양시민대학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사랑나무야학 강원도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평생교육원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라북도 |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발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557 http://le.nile.or.kr
기획 편집 / 디자인 롸이팅라이더즈 halzine@naver.com
사진 최고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